

분식회계의 원인과 예방책

정부가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고 해서 회계 투명성이 저절로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재무정보의 주체는 기업이고 그 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사람은 바로 경영자이다. 비록 투명한 기업경영과 성실한 공시가 지금 당장 이익 창출은커녕 고통을 가져올 수도 있겠지만 경영자는 이러한 근시안적인 사고에서 탈피하여 장기적인 시각을 가져야할 것이다.

회계의 기능은 재무제표 이용자가 경제적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다.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주식회사에서 경영자는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 재무정보를 마련하여 이를 외부주주에게 보고하는 수탁기능(Stewardship function)을 수행하게 되는데,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외부주주로서는 재무정보가 없다면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활동에 관한 직접적인 정보 수집 혹은 분석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주주뿐만 아니라 재무정보 이용자의 범위는 채권자, 종업원, 고객, 과세당국 등 실로 다양한데, 재무정보는 회사를 둘러싼 이들 이해관계자 집단 간의 부의 재분배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어느 나라에서나 재무정보의 공시를 규제하는 기관이 존재하기 마련이고, 한편으로 기업은 회사의 명성과 신뢰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기업전략의 일환으로 자발적으로 각종 재무정보를 이해관계자 집단에 제공하기도 한다.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분식회계

재무정보의 주된 공급자인 경영자는 좋은 조건으로 자본을 조달하기 위해, 한계기업의 생존 연장을 위해, 혹은 회사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본인의 경영실패를 은폐하거나 성과보수를 확보하기 위해, 또는 내부회계통제절차의 미비, 사회 전반적인 부조리 관행, 세무목적에 종속되어 인식되는 회계 관행 등으로 거짓된 정보를 제공하려는 유혹에 빠지기 쉬운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경영자가 이러

한 유혹에 빠지게 되면 분식회계(Window dressing) 또는 회계사기(Accounting fraud)가 이루어지게 된다.

분식회계는 개별 기업 이해당사자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거시적으로는 우리나라의 국가투명성 지수를 하위에 머물게 하는 주된 원인이기도 하다.

미국의 엔론과 월드컴 사건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우, 한보 사건 등을 겪으면서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가 자본시장의 발전에 필수불가결한 것이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바 있다.

또한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분식회계가 투자자 등에 대한 단순 사기행위에 그치지 않고 시장기능을 통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왜곡시켜 국민경제에 막대한 부담을 지우는 중대한 반사회적인 범죄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기업 경영자와 외부감사인 등에게 실형이 선고되기도 한다.

분식회계의 덮을 제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분식회계의 원인들을 제거해야 회계정보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최근 정부당국은 분식회계를 방지하고,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련의 회계제도 개혁을 추진해 오고 있는데, 개혁방안의 핵심은 기업의 회계정보가 정직하고, 정확하게 작성되어 적시에 제공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구축해 투명회계 관행이 기업 현장에 뿌리



내리도록 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기업지배구조를 이루는 6대 근간인 이사회, 감사(위원회), 최고경영진, 내부회계 관리조직, 외부감사인 및 감독당국이 각자의 기능을 책임 있게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계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으며,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공시서류의 허위표시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CEO·CFO의 인증을 의무화하고, 사실상 업무 지지자(대주주 등)에 대하여도 민사책임 부과
- ★ 주요 주주·임원의 지위남용 방지를 위하여 이들에 대한 금전대여 또는 담보제공 시 이사회 승인을 의무화
- ★ 집단소송제도 시행
- ★ 투명회계 확보를 위한 감시기능 제고를 위하여 감사의 전문성 요건 강화
- ★ 회계정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한 내부회계관리제도 및 내부고발자보호제도를 항구적으로 법제화하고, 내부고발자에 대한 차별대우 금지 등 제도개선
- ★ 회계제도의 국제적 정합성 확보를 위하여 연결재무제표 중심의 공시제도로 전환
- ★ 회계정보의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합병재무제표 등 비정기 재무제표에 대해서도 공인회계사의 검토 또는 감사를 의무화

- ★ 기업이 과거분식을 자발적으로 수정할 경우 수정부분에 대해 한시적으로 감리를 제외함으로써 집단소송제 시행에 따른 상장기업의 부담 완화

기업의 투명성 확보는 경영자의 몫

정부가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고 해서 분식회계가 사라지고 회계 투명성이 저절로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투명한 재무정보의 공급은 감독기관이 하는 것도 감사인이 하는 것도 아니다. 재무정보의 작성과 공시의 주체는 기업이고 그 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사람은 경영자이다.

경영자는 경영자의 수탁기능 및 재무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구조적으로 재무정보가 제대로 생성될 수 있도록 내부회계관리제도 등의 인프라를 구축하여 투명한 재무정보를 공급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제대로 작성된 재무정보를 적시에 성실하게 공시함으로써 시장 참여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고, 이는 곧 투자자의 시장에 대한 신뢰도를 의미하게 된다. 비록 투명한 기업경영과 성실한 공시가 지금 당장 이익 창출은 커녕 고통을 가져올 수도 있지만 이제 이러한 근시안적인 사고에서 탈피하여 장기적인 시각을 가져야 할 때이다.

경영자의 진정한 노력 없이는 분식회계 근절은 구호에 불과할 것이며, 달콤한 분식회계의 유혹에 빠졌다가는 모든 것을 잃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